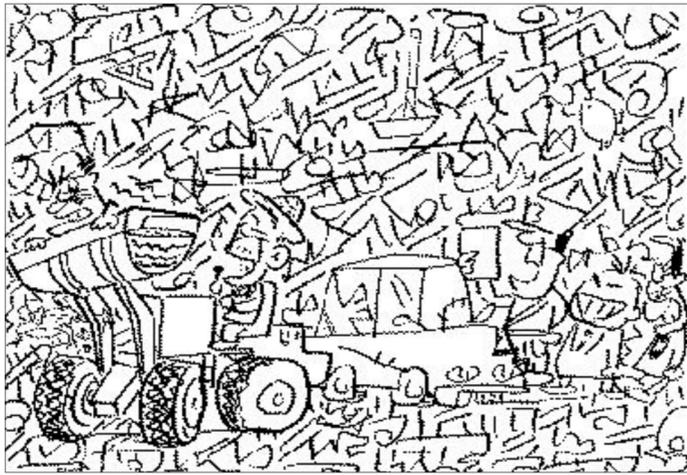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132>



찾아보세요 송사리, A자, 종이배, 열대어, 수박, 개구리, 병아리, 슬리퍼, 조각칼

화끈한 농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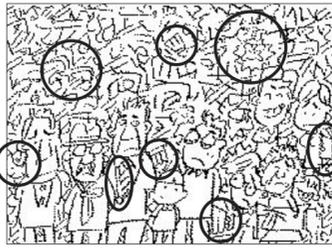
국회의원들을 실은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절벽 아래 논두렁으로 추락했다.

때마침 농부가 그 현장을 목격한 뒤 땅을 파고 국회의원들을 모두 정성껏 묻어주었다. 며칠 뒤 파출소장이 농부를 찾아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농부는 파출소장에게 국회의원을 전부 묻어 주었노라고 말했다.

파출소장: 아니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전부 그 자리에서 죽사했다는 겁니까?

농부: 뭐 몇 사람이 살아있다고 외쳤지만 그 사람들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지난주 정답

은행잎, 풍당연꽃, 성냥개비, 셔플룩, 불림림, 디미미, 갈매기, 사자, 펜촉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백은옥 <광주시 동구 학동> 김대옥 <강진군 대구면>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1930년 7월 13일 제1회 월드컵 축구

1930년 남미의 축구 강국 우루과이에서는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다. 7월 13일 FIFA의 주관으로 유럽 4개국, 남·북아메리카 13개국이 우루과이를 찾아 18일간의 축구 열전에 들어갔다. 올림픽과 더불어 세계인의 스포츠제전으로 불리는 월드컵축구대회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1920년대 초반 유럽에서는 클럽 축구가 활성화 되면서 축구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마추어 정신을 강조하는 올림픽에 프로 선수들이 참여할 수 없는 등 제약이 따르자 FIFA는 프로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과시할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FIFA는 1928년 총회를 열고 1930년 축구대회 개최를 결정하고 개최국 물색에 나섰다. 첫 개최국의 영광은 독립 100주년을 맞은 우루과이의 몫으로 돌아갔지만 대회가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축구의 중심지였던 유럽국가들이 남미에서 축구 대회가 열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동거리상의 문제를 들어 대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유럽과 남미의 축구 자존심 대결이 펼쳐졌다. 다행히 FIFA회장 줄리메의 중재 끝에 1930년 7월 13일 역사적인 월드컵이 탄생하게 됐다.

프랑스의 대명명 기념일과 무산 위기의 월드컵을 구해낸 프랑스 출신 줄리메 회장의 예우차원에서 우루과이가 개막전을 양보해 1회 대회 개막전의 주인공은 프랑스와 멕시코가 차지했다. 지역 예선없이 초청형식으로 월드컵에 출전한 13개국은 30일까지 18일간 열전을 펼쳤고, 43만 4천500명의 관중이 찾아 월드컵의 탄생을 지켜보았다.

7월 30일 대망의 결승전에는 남미의 축구 강

호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가 맞붙었고, 첫 대회 MVP 게스트로 의 해기골로 우루과이가 4-2로 우승을 차지했다. 제 1회 월드컵 개최국 우루과이는 올림픽 2연패에 이어 첫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FIFA 회장 줄리메로 부터 우승컵을 수여받았다.

우승컵은 프랑스 조각가인 아베르 사프가 승리의 여신이 팔을 뻗어 팔각형 컵을 받들고 있는 형태로 조각한 금금 트로피였다. 지난 1970년 브라질이 멕시코 월드컵에서 통산 3회 우승을 달성하면서 브라질에 영구 수여했던 이 트로피는 월드컵을 위해 헌신했던 줄리메 회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줄리메컵'으로 불리고 있다. 수 차례 도난과 분실의 고난을 겪은 '줄리메컵'은 지난 1983년 브라질축구협회 사무실에서 도난당한 뒤 자취를 감췄다. 현재 브라질축구협회는 원본 대신 복제품을 소장하고 있다.



1930년 제1회 우루과이 월드컵대회를 기념해 제작된 대회 포스터.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리빙 센스

오징어 짬뽕전



오징어다리 2마리분
깻잎 10장
참·홍고추 1개씩
부침가루 100g
달걀 1개
고추장 1큰술

- ①오징어 다리를 잘게 썰어 놓는다.
②깻잎이 씻은 깻잎은 가늘게 채 썰어준다.
③청고추와 홍고추도 모양대로 썰어 놓는다.
④부침가루와 달걀을 넣고 물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반죽을 만든다.
⑤반죽에 준비해둔 재료를 넣고 고루 섞어 준다.
⑥팬에 기름을 두른 뒤 한 스푼씩 퍼서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내면 향긋한 오징어 짬뽕전이 완성된다. 입맛에 따라 반죽에 고추장을 풀어 넣어주면 매콤한 전을 만들 수 있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7월 9일(음 6월 7일 庚戌)

36년생 불요불급한 구애로 소비가 생긴다. 48년생 생긴 돈보다 소비가 더 크다. 올바르게 판단하라. 60년생 기본 좋은 하루가 되리라. 72년생 작은 것이 소중하니 오히려 주의하라. 84년생 직장에서 인정 받고 경사가 생기리라. 행운의 숫자: 21, 25

37년생 멀리서 귀인이 찾아온다. 49년생 대가 없는 인덕은 좋은 인연을 만들게 되리라. 61년생 지식보다 지혜를 보여줘라. 73년생 너무 무리한 일은 벌이면 손해가 크다. 85년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생기지만 좋은 일이 더 많다. 행운의 숫자: 08, 37

38년생 고난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항하라. 50년생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니 매사에 철저하라. 62년생 단순한 방법이 지름길이다. 74년생 현실보다는 큰 꿈을 가져라. 행운의 숫자: 11, 34

39년생 옛 친구를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는다. 51년생 이왕 출발했으면 앞은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린다. 63년생 해결이 안 되는 일은 없다 걱정을 버려라. 75년생 마음의 평온을 잃면 희망도 보인다. 행운의 숫자: 07, 40

40년생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라. 52년생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라. 64년생 가정불화는 피하라 불연이면 이별 수도 보인다. 76년생 자신의 일을 조심하 스스로 만든다. 행운의 숫자: 05, 26

41년생 대부분의 걱정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내용이다. 53년생 좋은 생각은 올바른 행동을 낳는다. 65년생 과거에 억매이지 마라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좋으리라. 77년생 인생의 또 한 번의 도전을. 행운의 숫자: 04, 38

42년생 주변의 진척을 찾아보라. 54년생 밖의 일은 아랫사람에게 부탁하고 내부의 일을 잘 챙겨라. 66년생 재물을 나누면 행복은 배가 된다. 78년생 마음을 비우면 오히려 채워진다. 행운의 숫자: 17, 29

43년생 아침은 즐거우나 오후는 무료하다. 55년생 주변의 이성에 인기가 상승한다. 67년생 옛 친구에게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면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79년생 용기 있게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면 도움이 되리라. 행운의 숫자: 03, 45

44년생 친구와 좋은 곳에서 일을 꾸민다. 56년생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라. 68년생 오래된 문서가 큰 재물로 변한다. 80년생 친구에게서 좋은 소식이 전해온다. 행운의 숫자: 09,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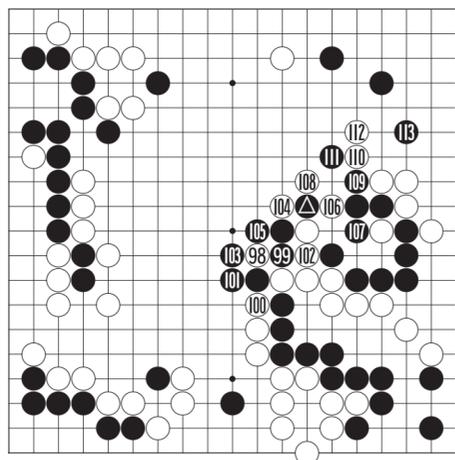
45년생 달콤한 말은 목이 나빠지지 마라. 57년생 여유 있게 행동하면 득이 되고 급하면 실이 된다. 69년생 오늘은 고통이지만 내일을 기약하라. 81년생 다투지 말고 협상에 응하라 관자리를 쥔다. 행운의 숫자: 01, 35

46년생 자식에게 신경을 써라 자식은 자신의 희망이다. 58년생 소원했던 여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온다. 70년생 마음이 허하니 기쁘고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82년생 문단속을 잘하면 실물 은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19, 31

47년생 심내 목은 체증이 내려간다. 59년생 뒷사람의 충고를 들으면 짐을 자다가도 락을 얻는다. 71년생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면 손해도 비켜간다. 83년생 하루가 대단히 불행하리라. 지난다. 행운의 숫자: 04, 44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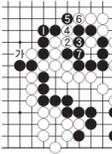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제17회 光日盃 광주전남지역대항

만남짜리 빵때림 3회전 2국 6보 (98~113)

白 허우석 5단 (북구청) 黑 이한재 5단 (조선대)



<참고도>

흑 ▲로 봉쇄 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분위기. 그런데 흑 모양이 워낙 넓어서 이 수가 '거미줄로 호랑이를 잡으려고 한' 무리수였음이 금방 드러났다. 백 98로 컷하자 기세상 흑 99로 끊을 수밖에 없는데 백 102 다음 흑의 응수가 없다. 이한재 5단은 고민 고민 하다가 흑 103으로 물고 말았는데 이 수가 흑이 대책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로 잇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으나 당장 '가'로 밀어오는 수도 겁나고 백 2 이하 6까지 나가 끊는 수도 성립한다. 8가지 면 오히려 흑이 잡고고 만다. 반대로 허우석 5단은 손바람을 내고 있다. 신나게 106까지 물었을 때 흑 107이 쓰러진 후퇴로 결국 만남짜리 빵때림을 허용하고 말았다. 허 5단은 기분이 좋은 나머지 108로 따내고 말았는데 이 수로 109에 막았으면 더 뒤를 필요도 없었다. 늦추는 바람에 113으로 역습을 당해 조금 시끄러워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전영규 천원전 8강 진출

전영규 3단이 8일 서울에서 열린 제 13기 박스스페 천원전 16강전에서 김승재 2단을 상대로 232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다. 이로써 전영규는 원성진 9단과 강유택 초단의 승자와 준결승전 진출을 다투게 됐다. 또 이날 승점을 보태면서 올해 14승7패가 됐다. 이번 대회는 예선 통과자 12명과 본선 시드 4명(원성진, 강동윤, 안조영, 이세돌) 등 총 16명이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제한시간은 각자 1시간에 40초 초읽기 3회. 상금은 우승 2천만원, 준우승 1천만원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1199>

오하오우 니혼고 <1199>

니하오 쑹구위 <176>

한자 이야기 <816>

English lesson content: 'Are you ready to get to work? 일할 준비됐나?' with dialogue and vocabulary.

Japanese lesson content: 'むし暑くて過(す)ごしくいほどです。 무더워서 지내기 힘들 정도입니다.' with dialogue and vocabulary.

Chinese lesson content: '多不多? 많니?' with dialogue and vocabulary.

Chinese lesson content: '沐猴而冠(목후이관) 머리감을 목, 원숭이 후, 말이을 이, 갓 관' with explanation and examples.